

美 IRA 재편·중국산 규제 강화... 국내 태양광 실적반등 기대

미국 IRA로 자국 생산 우대 강화 중국산 규제에 북미시장 재편 가속 한화솔루션, 조지아 솔라허브 가동 OCI홀딩스, 비중국 공급망 구축 완료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위치한 한화큐셀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과 미국 정책 재편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와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 불안과 유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에너지 안보 대응 수단으로 태양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을 계기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번 중동 분쟁 역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와 수요 확대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정책 변화 역시 시장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품에 대

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생산 체계를 갖춘 기업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중심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실적반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미국향 태양광 제품 통관 이슈가 해소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조지아주 태양광 통합생산단지 '솔라 허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3.3기가와트(GW) 규모로 잉곳·웨이퍼·셀·모듈까지 이어지는 생산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잉곳 양산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셀 양산까지 확대되면 IRA에 따른 혜택도 확대될 전망이다.

OCI홀딩스는 비중국 공급망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4월 베트남 웨이퍼 법인 네오실리콘 테크놀로지의 상업 생산이 시작되면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베트남 웨이퍼, 미국 셀·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완성된다.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 서스 가동률은 90%를 웃돌고 있으며 북미 고객사와의 추가 공급 계약 논의도 이

어지고 있다. 비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요 확대 흐름 속에서 공급 안정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실적 역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OCI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73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미국 시장에서 형성된 비중국산 프리미엄이 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관세·쿼터)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 발표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비중국 폴리실리콘의 시장 지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변동성과 화석연료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력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광 등 연료 의존도가 낮은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전, 서해안 재생에너지 잇는 HVDC망 착수

새만금~수도권, 2030년 준공 추진 서해안 전력 수도권 보내는 핵심망 해저 송전 확정... 2038년 순차 완공



한국전력 본사 전경.

/한전

한국전력이 서해안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실어나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한전은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고, 1단계인 새만금-수도권 구간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주요 수요지로 송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총 4개 HVDC 송전망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전체 사업은 2038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3월 초 해저케이블 경로 지 설계에 착수했으며, 앞서 8개 변환소 부지 선정도 마쳤다. 특히 경제성·시공성·에너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전망을 해저 방식으로 구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통상 HVDC 건설에는 9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전은 공정 혁신과 민관 협력을 통해 공기를 단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2년 이상 걸리던 기본설계를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 해저케이블 공사를 발주해 시공에 조기 착수한다.

또 기존에는 계약 이후 수행하던 해양 조사를 한전이 선제적으로 진행해, 케이

블 제조사가 계약 즉시 생산에 돌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시공 기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어업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한전은 어민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 인허가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와 실무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국내 케이블 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전은 제조사들과 협의회를 구성해 해저케이블 생산능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초대형 포설선박 등 핵심 장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향후 대한민국 전력망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미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1단계 에너지고속도로의 2030년 준공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조영혁 한국남동발전 사장 직무대행(가운데)이 18일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비상경영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남동발전

남동발전, 수익구조 악화 선제 대응

비상경영전담조직 출범

SMP 하락·연료비 변동성 확대 비용 절감·효율화로 흑자 전환 추진

한국남동발전이 중동 정세 불안과 전력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수익성 악화 요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긴축·효율'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남동발전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경영전담조직(TF)'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 대응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TF 출범은 최근 전력시장 핵심 지표인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가운데, 연료비 등 원가 변동성까지 확대되며 수익 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남동발전은 이에 따라 기존 경영 방식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뒷

받침하기 위해 10대 개선과제도 마련했다.

핵심 전략은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화다. 발전설비 이용률을 높여 전력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료를 보다 경제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고장비 절감을 통해 전사적인 비용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경영 TF는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총괄하며 ▲전력매출 ▲연료비 ▲고장비 ▲투자사업 관리 등 4대 핵심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외부 변수에 따른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을 도출해 이행력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경영 정상화 속도를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은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 동향을 적기에 파악하고 수익성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겠다"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안전 최우선 경영의 가치를 지키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연준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더 높아져"

>> 1면 '美 기준금리 동결... '서 계속

그는 "중동 사태의 경제적 파급 범위와 지속 기간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며, 향후 금리 조정은 들어오는 지표와 변화하는 전망, 위험 균형을 보며 회의마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는 "시장이 이번 회의를 전반적으로 패파적으로 해석했다"고 정리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지만, 소수의견이 1명에 그쳤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 조정된 데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경계와 유가 충격의 파

급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제로 연방기금금리 선물(Fed funds futures)에 반영된 연내 인하폭 전망은 26bp에서 13bp로 줄었고 미국 국제금리는 상승, 달러는 강세, 주가는 하락했다. 다만 점도표가 올해 1회 인하 전망을 유지한 점 자체는 비교적 완화적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었다.

유상대 부총재가 주재한 이날 TF 회의에서 한은은 이번 FOMC 결과로 연준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 전개 양상과 금융·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4월 금융통화위원회도 인하보다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준이 금리 경로 자체는 유지했지만 물가 경계와 대외 불확실성을 재확인한 데다, 한은 역시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지속을 언급한 만큼 당장 선제적으로 움직이 기보다 대외 여건과 물가환율 흐름을 더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다. /김주형 기자 g471@